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에 대한 지정 토론

박양진(충남대학교 고고학과)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은 1980년대 서구의 신진화론의 사회발전단계론, 특히 칩프덤(chiefdom)¹⁾을 청동기시대 지식묘사회에 적용한 시도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최근에는 도식적인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남부 각 지역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특히 영남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온 발표자의 이번 논문은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본 학술대회의 중심 주제인 청동기시대 무덤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의 변천과 위계화 진행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시도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하여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 제기를 통해 토론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연구흐름” 부분에서 제시한 <표 1> 평등사회와 계층사회의 주요특성은 토론자가 기왕의 논문에서 제시한 “평등 사회와 계층 사회의 주요 특징” (박양진 2006: 14)의 기본적인 틀을 수정하여, 평등사회 다음에 “계서사회 혹은 단순수장사회”를 배치하고 계층사회를 “복합수장사회”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간단계의 사회적 특징이 만약 “심화된 수평적 차별화”이고,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남녀노소의 사회적 분화이며, 획득적 지위의 “한시적 수장(지배자)”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평등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는 청동기시대 무덤을 분석하면서 크게 조기, 전기, 후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한반도 남부 전 지역의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한 사회의 사회적 성격을 고고학자료를 통하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동시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고고학의 연구 수준이 보다 세부적인 편년체계 수립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백년간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된 자료를 섞어놓고 마치 동시기에 존재한 것처럼 취급하고 분석한다면 상당한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 대상 자료의 공간적 범위도 관련 분석 대상 고고학 자료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social unit)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분석상의 또다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발표자가 후에

1) chiefdom은 학자들에 따라서 족장, 추장, 군장 등으로 번역하고 본 토론자는 수장(首長)의 용어를 사용하지 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외래어로서 칩프덤으로 사용한다.

제안하는 사회위계화의 지역간의 다양성을 덮어버림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단선진화론”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청동기시대 사회의 특성을 논의하면서 발표자는 지도자, 유력자, 지배자, 수장, 엘리트²⁾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서로 다른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자의 정확한 개념 규정 및 정의의 제시와 함께 이들 용어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발표자가 분석한 청동기시대의 무덤 자료는 지식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석개토광묘, 주구석관묘, 석관묘, 옹관묘 등이 있다. 발표자는 이들 무덤의 피장자의 성격, 무덤의 분포 양상과 무덤 축조집단의 권역, 사회구성단위, 무덤의 위계화와 장기지속성 등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 사회는 전기에는 일부 유력자로서의 수장이 존재하는 소규모-중대규모 사회집단의 두 단계의 사회구조에서 후기에는 좀더 강력하고 대외관계망을 가진 수장이 출현한 소규모-중간규모-대규모 사회집단의 2-3 단계의 사회구조로 변화하는 사회위계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결론적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사회는 발표자가 설정한 평등사회와 계층사회의 중간 단계, 즉 “단순 수장사회 단계의 계서 사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자가 직접 그 타당성을 여기에서 일일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과 건설적 제안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의 보완과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가 결론적으로 도출한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의 원인 또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국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전기와 후기의 구분은 주로 고고학 자료인 토기 양식 및 집자리 형태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전기와 후기의 교체기에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성격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면 그런 차이가 고고학 자료에서와 같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인가? 과연 이러한 사회적 성격의 차이, 즉 사회위계화가 진행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사회정치적 권력 출현의 기반으로 간주되는 경제, 이념, 무력(이희준 2011) 등의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발표자가 주장한 사회위계화의 과정(process)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들 용어의 개념을 학계에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 연구자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개념 제시와 사용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도자(권위)와 지배자(권력)는 그 사회적 성격과 힘의 근거가 다르다(이희준 2011: 36). 또한 수장을 취프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순히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이희준, 앞 논문).

토론자는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용된 에너지 총량이나 특정 위세품의 존재 유무만으로 위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청동기시대의 위계화 표시의 방식이 지역별로 다양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적 성격을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취락 자료의 분석, 무덤 자료의 분석, 출토 유물의 분석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시간적, 공간적 분석 단위의 세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취락 및 무덤 자료에 대한 지역적,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의 사회적 단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화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 사회 단위(social unit) 내부의 집단 사이의 분화/위계화와 함께 특정 집단 내부의 위계화/분화를 통한 지배계층의 출현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계층사회가 출현한다면 그러한 불평등의 고고학적 증거는 사회 전반의 물질문화에서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무덤에서만뿐만 아니라, 주거지, 유물, 수공업 생산 등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의 증거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이번 논문과 더불어 최근 발표된 이청규(2010)와 이희준(2011) 등의 논문이 한반도 고대 사회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최근의 이러한 연구는 또한 우리의 연구가 아직도 많은 보완과 수정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발표자 논문의 부제에서 적시한 “청동기시대 수장의 출현과 불평등 제도화 양상의 불안정성”은 당시 사회의 정확한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청동기시대 고고학 자료와 그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의 “불안정성” 또한 분명하며 여기에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과 과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朴洋震 2006 「韓國 支石墓社會 “族長社會論”의 批判的 檢討」 『湖西考古學』 第14輯
 李清圭 2010 「청동기시대 사회 성격에 대한 논의」 『考古學誌』 第16輯
 李熙濬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號.